

KRIVET Issue Brief:

한국인의 학습태도와 역량 수준 국제 비교

ILED 세미나
2016.5.11

이주경

한국인의 학습태도와 역량 수준 국제 비교

학습태도 점수를 국제 비교한 결과, 23개국 중 한국
(2.9점/5점)이 가장 낮고, 연령 간의 격차가 가장 큼

분석의 필요성

- PIACC에서 한국인의 인적자원 질이 낮게 나옴
 - 언어능력: OECD 평균 수준, 수리력과 문제해결력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음
- 기술기반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역량 개발이 필수적임
 -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학습 참여 확대와 학습 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

분석 자료

- 국제성인역량조사 (PIAAC: The 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)
 - 목적: 국가 간 인적자원의 질을 비교, 학습을 촉진하는 인지적, 정의적,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‘학습태도’의 실태를 국제 비교하여 관련 요인 검토
 - 총 23개국이 참여 (16~65세/ 약 13만 9천명)
 - 언어능력, 수리력,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, 개인의 학습, 직업생활, 스킬 사용에 관한 문항을 평가

학습태도의 정의 및 측정 방법

- 학습태도: 학습을 촉진하는 인지적, 정의적, 행동적 특성
- 측정 방법: 5점 척도 (전혀 아님~매우 그러함)로 측정하여 총 평균 점수
- 학습태도 측정 문항

-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거나 읽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떠올린다.

-나는 새로운 것 배우기를 좋아한다.

-나는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 지으려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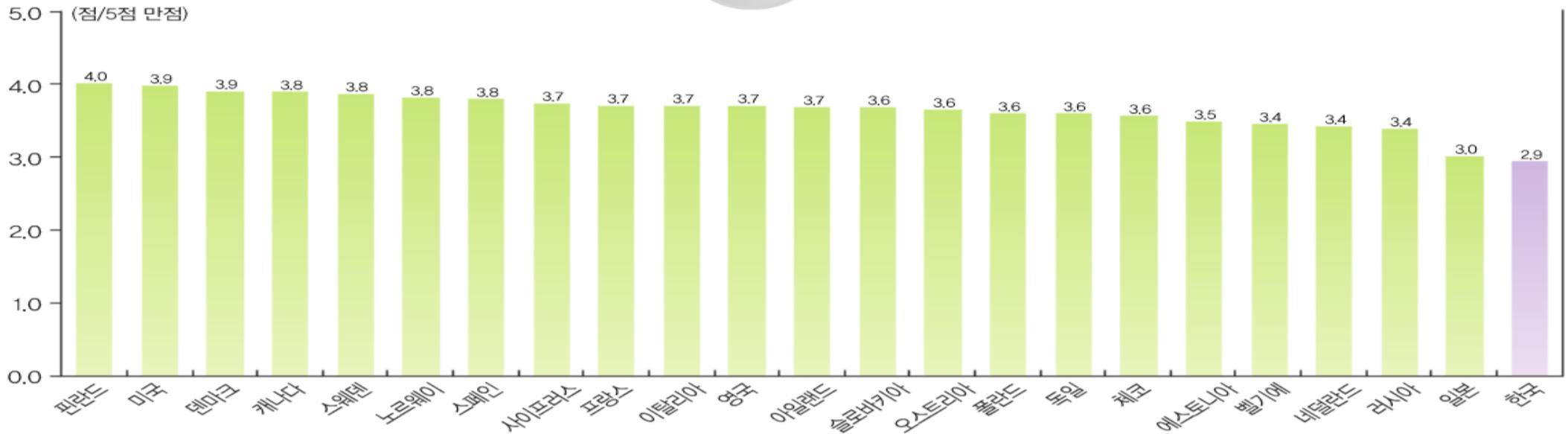
-나는 어려운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쳐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.

-나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좋아한다.

-나는 어떤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는다.

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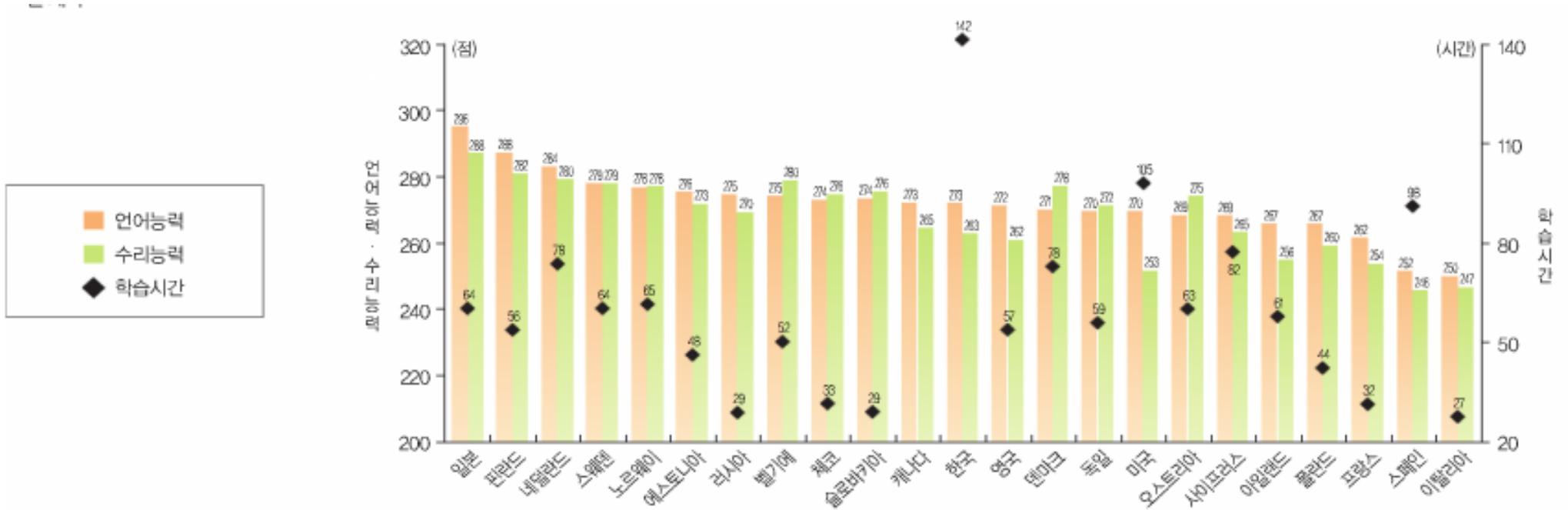
- 한국인의 학습태도 점수는 23개국 중 최하위, 연령별 격차가 가장 큼.
-한국의 학습태도 점수는 2.9/5점으로 23개국 중 가장 낮음



[그림 1] 국가별 학습태도 점수

학습태도와 역량 간의 관계

- 한국: 가장 긴 학습시간, BUT 역량은 보통 수준
 -학습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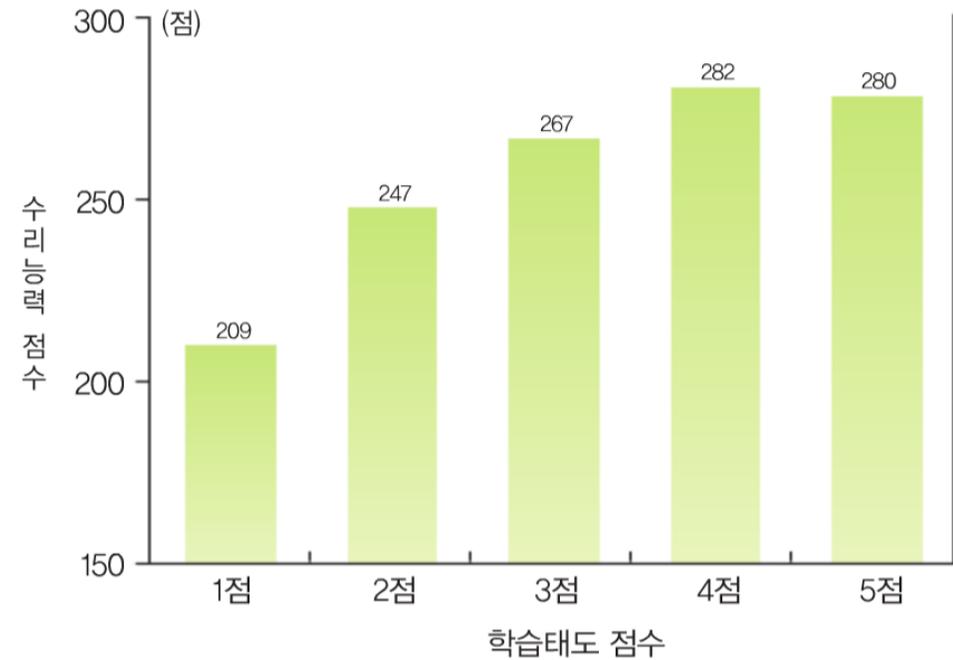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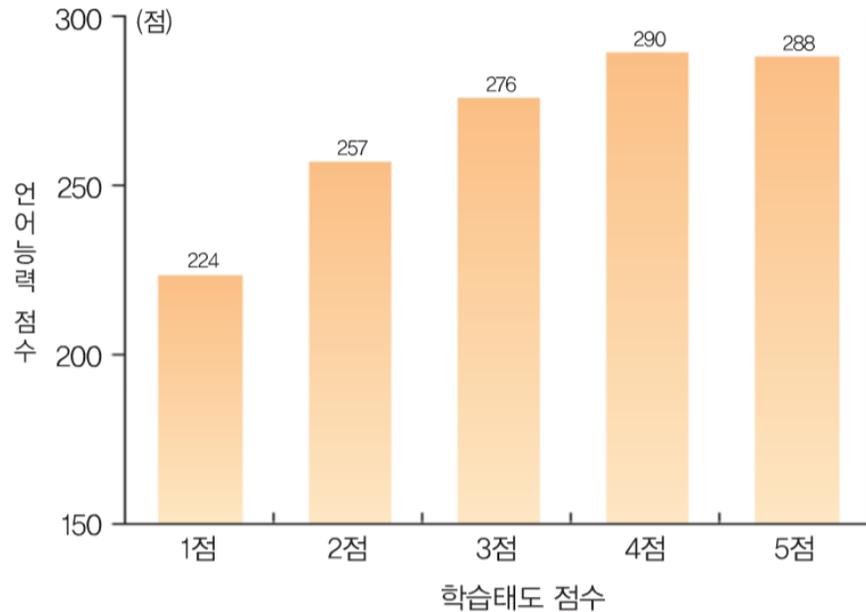


[그림 4] 국가별 역량 점수 및 학습시간

학습태도와 역량 간의 관계

- 학습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역량

-언어능력 & 수리능력



시사점

- 한국인의 가장 낮은 학습태도
 - 자기주도적인 학습 필요
 -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확대 필요
 - 학습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
- 긴 학습시간, but 중간 수준의 역량
 -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
-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학습태도
 - 고령화 사회: 성인학습의 참여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필요